

# 특별대담 '禪과 21세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심재룡 교수(서울대·철학)

20세기말과 21세기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드는 IMF, 정보통신의 발달,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이다. 그 속에는 빠름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빠름과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에는 다분히 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15세기의 한때를 살았던 피테는 "우리의 모든 이론화 작업은 결국 실재의 접근에 실패할 것"이라며 서양문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신심리학자 융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선은 불교의 방대한 사상체

계를 받아들여 더욱 풍부하게 한 중국정신의 놀랄만한 꽃"이라며 선에서 빛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며, '선은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이라는 명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의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법륜스님과 심재룡 교수의 대담을 통해 선이 사상적 대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불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다.



◇ 법륜스님과 심재룡교수는 선이 21세기 삶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은 4월29일 서울서초동 정토회법당에서 진행됐다.

## “깨달음과 대비심 조화이룰때 실천불교”

### ■ 선, 21세기 사상적 대안인가

법륜=선을 불교와 떼어내 선이 21세기 대안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불교다. 대승불교가 관념화 당주의화한 것을 비판하고 붓다의 근본정도로 돌아가자는 게 선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라고 묻는다면 한국선은 그 열정이 아직도 불교에 대한 반발로 본래의 불교로 돌아가고자 한 순수한 종교적 열정의 발로이다. 한국선은 그 열정이 아직도 불교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21세기 대안이라는 질문이 적절하다.



심재룡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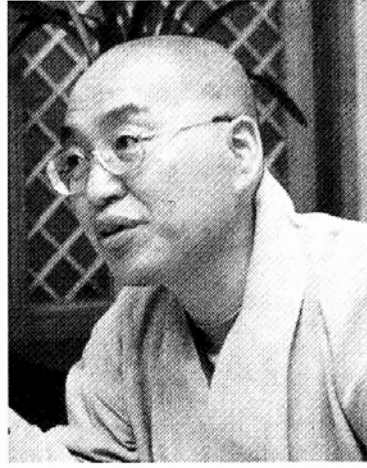
### 禪, 자기반성 넘어 생활운동으로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부드러는 스님은 천명 안팎이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히 참선수행하는 수좌들이 소수에 머물고 있다. 선불교 수행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수행 부재의 결과가 조계종사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륜=더 근원적인 문제는 세속주의다. 현재 한국불교는 세속주의에 철저히 물들여 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는 게 잘 사는 것이 세속주의인데,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처님께 빌면 물질의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브라만이 되어버렸다. 정당하게 경쟁해서 많이 가지려는 것이 세속적인 정의라면, 지금의 불교는 세속적인 불의에서 있다. 불교만이 아니다.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종교는 세속주의종교 하나밖

에 없고, 세속주의가 유일사상이고 세계의 종교는 세속주의라는 종교의 한계과일 뿐이다. 현재의 한국불교가 서 있는 토대로는 결코 세계화도 할 수 없고,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진지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심재룡=선불교는 대승불교의 관념화를 부순 것으로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교라는 큰 틀을 무시하고 선만을 따로 강조해선 안된다. 선불교는 단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앞에서 수행법의 미확립을 지적했는데, 돈오돈수(頓悟頓修)만이 정로(正路)라며 다양한 근거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근거를 무시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애써서 수행체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러 수행법을 주류와 비주류, 수승과 열등한 것

을 받아들이며 더욱 풍부하게 한 중국정신의 놀랄만한 꽃"이라며 선에서 빛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며, '선은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이라는 명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의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법륜스님과 심재룡 교수의 대담을 통해 선이 사상적 대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불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다.



법륜 스님

### 화엄의 인드라마 '공존의 길' 제시 한국불교 세속주의 반성 필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화두를 받아들인다. 스님만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선이 되어야 한다. 또 자기반성을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식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운동 사회운동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 ■ 불교공동체의 회복

법륜=앞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인류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는데, 환경문제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같은 경향의 철학적 바탕은 사회를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라는 시각이며, 대립이 위태롭다. 대립은 둘 중 하나가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살펴보면, 이 세상의 존재는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조화와 균형이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공동체의 대표적 모델이 승가집단인데, 승가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다.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 경제적인 평등, 이것을 위한 율화합의 원칙이 갖춰져 있다. 승가공동체를 당시 사회의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심재룡=개인은 소유하는 개인이고, 경쟁하는 개인이다. 개체가 모여서 경쟁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여기에 자본주의까지 합쳐져 20세기는 욕망의 확대재생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승가공동체는 무소유·무아집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 소유도 공유다. 무소유라는 말은 서로 나누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분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 심각하다. 나는 못 먹는데 너는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륜=승가의 민주주의란 무소유적 가

치관에 바탕을 두고 무아집,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의미의 공동체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세속적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수행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중도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 즉 해탈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을 체험시켜 나가야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정토회도 공동체 실험의 하나다.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내부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 밖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심재룡=불교공동체의 근본 취지는 불교의 본 뜻을 살려 실천적인 사회구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필요하다. 선이 21세기의 인류에게 사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유보해야 한다. 붓다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체의 회복은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불교도의 과제이기도 하다. 법륜=대승보살도를 우리는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기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 변화라는 것이 수행을 말한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를 정의를롭게 하기 위한 실천이다. 아침에 일어나 참선하고 낮에 일하고, 다시 사시에 불을 올리는 의미의 수행과 일이 아니다. 일과 수행을 분리해선 안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다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다. 깨달음이란 나와 타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이 따로 있고 대비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곧 비심(悲心)을 가져오고,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상대를 살펴보고 상대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달음의 것이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주 혜성  
주지 광복

대중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상무이사 성문

“선사스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불교발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우 110-240)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